



중국의 임금 상승

‘세계공장’ 시대 막 내리나?(2)

글 : LGERI

중국의 저임금 시대가 저물고 있다. 올 들어 법정 최저임금이 평균 20%나 급등한 가운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도 잇따르고 있어 ‘세계공장’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유난히 커 보인 것은 2009년의 미반영분까지 반영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임금 수준은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가와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 멕시코 등 일부 개발도상국의 절반 수준이어서 경제발전 수준과 임금간의 괴리가 있다. 중국 정부는 임금 인상을 경제구조전환, 양극화 해소 및 사회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삼고 있다. 중국 근로자들의 권익의식 제고 및 신세대 농민공들의 부상으로 노동분쟁의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저임 제조업 공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가 2015년까지 평균 임금을 현재의 두 배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향후 임금 상승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생산성을 초월해 임금상승이 이뤄지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산업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이외에 양호한 물류 인프라와 제조업 클러스터, 제도적 환경, 특히 거대한 내수시장의 잠재력은 중국이 생산지로서 갖고 있는 남다른 매력이다. 인건비 상승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화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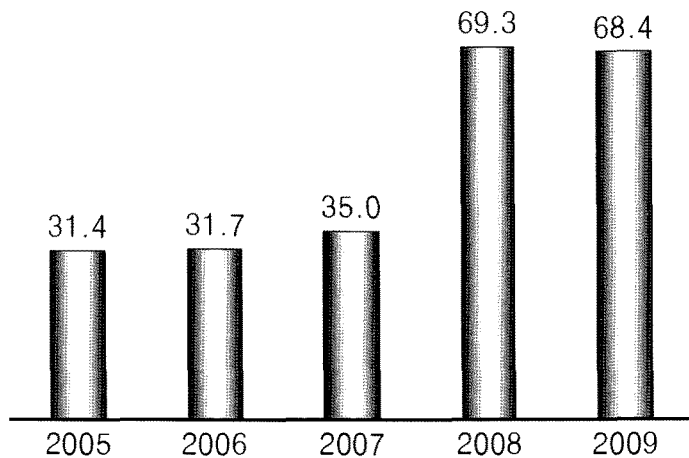
최근 중국 노동시장은 잇따른 파업 사태와 임금 인상 파동으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폭스콘 중국 선전공장의 연쇄 자살 사건을 계기로 다국적 기업들의 ‘노동 착취와 도덕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현 임금 수준의 불합리함을 성토했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폭스콘이 급기야 기본급을 9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122% 상향 조정한데 이어, 일본 혼다차 포산 공장도 34% 인상안을 타결해 사태를 진정

시켰지만 선두기업 임금 인상에 따른 '양떼효과'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임금 인상의 물결이 확산되는 와중에 올 들어 14개 주요 도시의 최저임금이 평균 20% 급등했다. 중국 저임금 시대의 종언이 현실화 되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생산기지를 아예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과연 중국이 '세계의 공장' 으로서 누렸던 '봄날' 은 간 것인가?

I. 임금상승의 실체와 배경

3. 갈수록 증가하는 노동분쟁

중국 정부가 2008년부터 실시한 근로계약법이 중국 노동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변곡점이었다면 최근에 잇단 노사쟁의는 이런 추세의 연장선 상에서 임금 상승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인 셈이다. 중국은 1982년에 사회주의 체제하에 노동쟁의가 일어날 리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한 뒤 노동자 쟁의권에 대한 분명한 법적 규정 없이 공백상태에 놓여 있다가, 지난 2008년이 되어서야 '노동쟁의 조정 중재법' 을 도입했다. 최근 중국 사회보장국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중국의 노동쟁의 건수가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고, 파업사태는 외자기업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최근 허난성의 편면방직 공장 등 일부 국유기업까지 번지고 있다.(<그림 1> 참조).



자료 : 중국 사회노동보장국

<그림 1> 노동분쟁 건수(만건)

이는 한국 1988년 올림픽 전후에 나타나는 패턴과 매우 유사한 면이 있어 중국 노동자의 권익의식이 한 단계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한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억눌렸던 불만이 한꺼번에 표면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중국의 '노조' 격인 '공회(工會)'는 한국과는 달리 '친근로자' 적인 성격보다는 친 기업적인 협의 창구 역할과 노사간 충돌을 막는 완충기능을 수행해왔다. 노동자들이 파업 사태를 벌일 때 공회 직원들이 오히려 노동자와 맞서는 경우도 흔히 있다. 이처럼 '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하는' 공회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향후 공회의 '노동자 권익 제고' 역할도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신세대 노동자' 들은 기성세대의 의식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80년대 이후 태어난 이들의 수가 대략 전체 농민공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3高 (높은 교육수준, 직업기대치, 삶의

기성세대와 의식수준이 크게 다른 신세대 노동자들이 노동분쟁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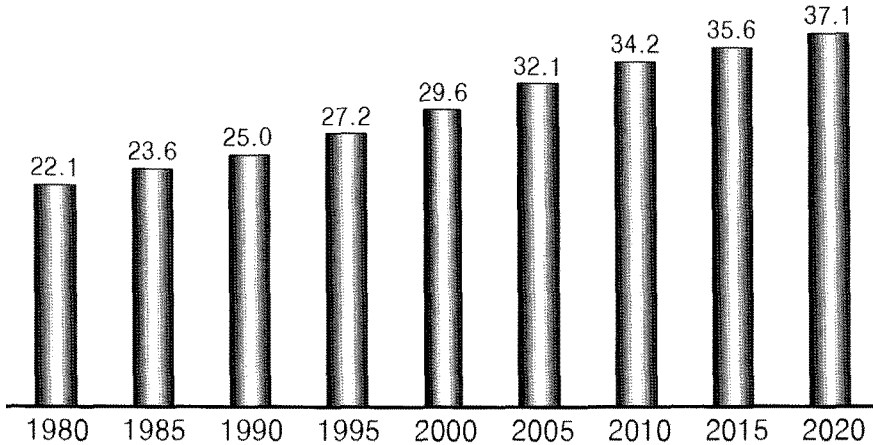
질에 대한 기대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3低(낮은 임금수준, 사회보험가입 및 노동계약 체결 비율)의 현실 직면하고 있어 꿈과 현실의 괴리와 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농사 경험이 전혀 없는 그들은 '1자녀' 세대답게 자신의 불만을 쉽게 표출하고, 열악한 환경과 불공정한 대우를 잘 견디지 못하는 반면, 더 나은 삶에 대한 욕망은 훨씬 강렬하다. 그들은 실용주의적이면서 차별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특히 권리의식이 높은 편이다. 실제로 혼다 공장 파업 사태가 벌어질 당시 한 20대 '신세대 근로자'가 베이징 대학의 법률 전문 교수한테 전화를 걸어 관련 자료를 요청한 뒤, 중국 대표 메신저 QQ를 통해 노동자를 끌어 모았다. 과거보다 한층 '도시화' 된 '신세대 농민공'의 눈높이 역시 기업 경영비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II. 임금상승은 어디까지?

1. 다가오는 '루이스 전환점'

임금 추세를 좌우하는 근본적인 요인인 노동력 수급관계도 점차 빠듯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1자녀' 정책 탓에 중국은 baby boom 세대들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2015년 전후에 최고치에 달한 후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전체 인구에서 15-29세의 젊은 층 비중도 역시 서서히 감소될 전망이다. 2010년 2/4분기의 도시 인력 수급 현황을 보면 25-34세 연령대의 공급부족이 가장 심각하다. 세계은행도

2010년 중국 인구의 평균 나이가 34.2세, 2030년에는 40세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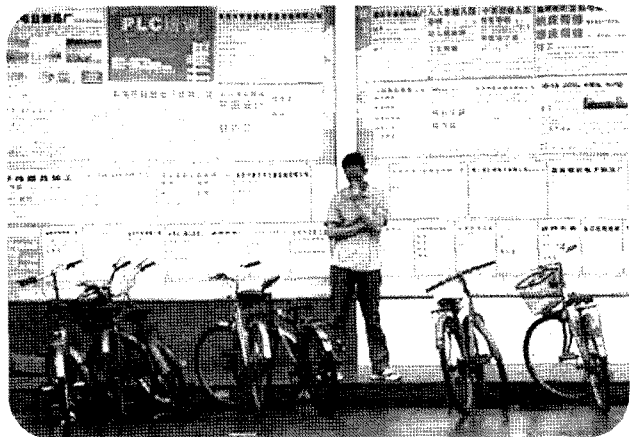
자료 : Worldbank

〈그림 2〉 중국 인구의 평균 나이

더군다나 최근 농민공 부족 현상이 연해지역뿐만 아니라 내륙까지 확산되면서 중국은 이미 '루이스 전환점'에 도달했다는 견해까지 제기되고 있다(〈그림 3〉 참조). 즉,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유입이 줄어들면서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임금이 본격적으로 오르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농업부문 잉여노동력은 아직 7,500만 명으로 추정되나 50% 이상이 40대 이상인 사실이 잉여노동력의 고갈이 임박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루이스 전환점'이 도달할 때까지 아직 많은 시일이 필요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노동력부족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 농업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아직 제조업보다 현저하게 낮고(한국의 1/2), 도시화 비율도 47%로 일본과 한국이 '루이스 전환점'을 도달할 당시의 70%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향후 기계화에 따른 농업 부문의 노동생산성 제고와 도시화 확대 등으로 잉여노동력이 추가 배출될 여지가 크다.(만약 중국의 농업 노동생산성을 한국의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면 1.7억 명의 잉여 노동력의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유 이주 동동을 막는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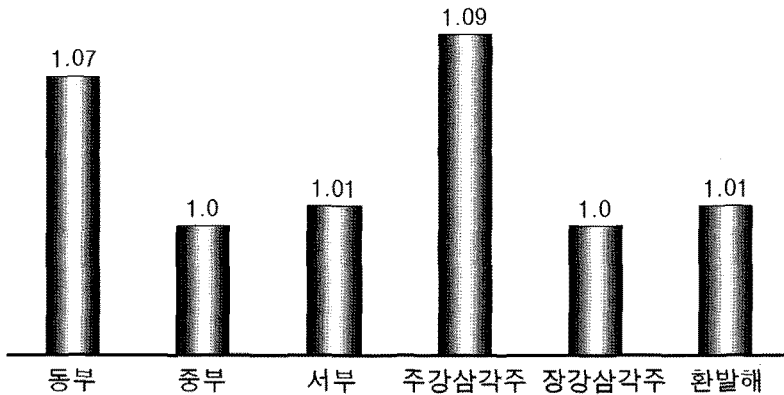


도적 장벽인 호구제도의 점진적인 완화도 잉여노동력 공급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최근에 나타나는 농민공 부족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동부지역 공장이 대규모 감원했지만 올 들어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노동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중서부에 집중되는 인프라 건설과 내륙도시의 공업화 수준 제고 과정에서 생기는 노동력 수요가 이미 많은 농촌 노동력을 흡수했고, 정부의 농업세 폐지, 농민복지 확대 등 정책도 도시이주 노동의 기회비용이 커졌다. 이 밖에도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풍조가 제조업의 인력부족을 심화시키는 면도 있다. 따라서 노동직약형 공장이 밀집한 주강삼각주 지역의 인력난이 유난히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루이스 전환점'이 도달할 때까지 아직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지만 농업 생산성 제고 등에 따른 농촌 잉여노동력 공급이 경제발전애 따른 노동력 수요의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일부 저임 제조업 공장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노동력 부족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외에도 빠르게 오르는 대도시의 주택가격과 물가가 노동자들의 임금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베이징의 주택 평균가격이 2005년보다 2.14배 올랐으며, 최근 3년의 전국 물가 상승률이 3.3%에 달했다. 향후 도시화 등으로 대도시의 주택 및 물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 : 1보다 크다는 것은 노동력 부족을 의미함.
 자료 : 중국 사회노동보장국 (2010년 1/4분기)

<그림 3> 지역별 구인/구직 비율

2. 임금은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중국 사회 전반에서 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지역에서 인력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임금 상승 압력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근로자

정부의 임금 인상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연간 임금 상승률이 1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임금을 현재의 두 배로 올리기 위해 일본이 1960년대에 실시한 '국민소득 배증(倍增) 계획' 과 비슷한 '소득분배 조정을 강화하는 지도의견 및 실행 세칙' 을 추진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금 상승률이 매년 15%가 되어야 한다. '00년 ~ '09년간의 평균임금 상승률이 14.7%인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임금 상승세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같은 신장세라도 실제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올해 전인대에서 중국 총공회 대표가 각 지역의 최저임금 수준을 해당지역 평균임금의 4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12.5기간(2015년까지) 내에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5년간 최저임금의 상승폭이 평균 임금보다 10%p 더 높아야 한다. 중국 정부 목표가 양극화 해소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 소득이 낮은 계층의 임금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가파를 수 있다. 노동 수급 상황을 보면 현재 전문대 이하의 저학력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아 불투명세를 중심으로 임금 상승이 예상된다.

한편, 현재 농민공들의 사회보험 가입비율이 20% 미만으로 매우 낮으나 향후 사회보장체제 강화에 따라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비용도 대략 임금의 30%수준으로 예상된다.



▶ 다음호에 계속